

"KBS는 어디로 가고 있는가?"

'일상의 위기'를 넘어
이제는 '위기의 일상화'

1~4월 당기손익

KBS **-680억원**
MBC **-190억원**
SBS **-352억원**

올해 4월까지 KBS 당기손익은 -680억 원으로 집계됐다. 수입은 4천102억 원인데, 비용은 680억원이 더 많은 4천782억 원을 썼다는 얘기다. 광고와 콘텐츠 판매 수익이 뚝 떨어진 것이 가장 큰 원인이다. 전반적인 지상파의 광고물량 축소나 계절적 요인이 있다지만, 이것만으로 위안을 삼기엔 심각하다.

하다. 지난해 평균 12%까지 떨어진데 올해는 평균 11.2%까지 내려갔다. 주말 시청률이 10% 이하로 떨어진 건 오래됐다. 그나마 평일 시청률이 버티어주었지만 5월23일(목) 8.7% 등 최근엔 평일에도 종종 10% 이하로 주저앉는다. 마지노선이라 여겼던 10%가 무너진 것이다.

1/4분기 광고 감소폭

(전년 동기 대비)

KBS **-37%** MBC **-28.4%**
SBS **-21%** JTBC **-14%**

특히 광고의 경우 다른 방송사와 비교할 수 있는 1/4분기 광고 감소량(전년 동기 대비)도 KBS가 -37%로 가장 크다. '어렵다 어렵다' 하는 MBC도 -28.4%로 KBS보다 사정이 낫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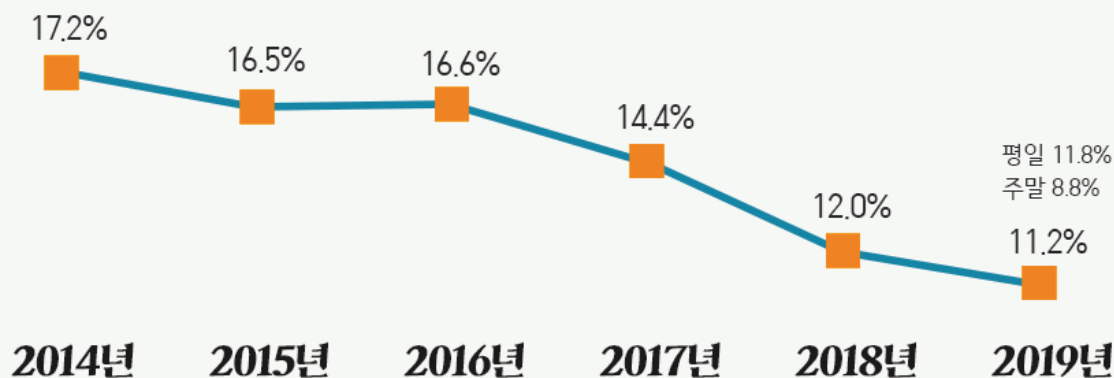
경영지표와 시청률 지표 외에도 이상 징후는 한두 개가 아니다. 국내 언론사 최초 문재인 대통령과의 단독 인터뷰라는 빅 이벤트도 살려내지 못했고, 사내 구성원 사이의 갈등도 잦다. 재난방송 주관 방송사의 지위마저 위태롭다.

KBS 콘텐츠의 경쟁력의 버팀목 가운데 하나인 9시뉴스의 시청률 하락은 더 심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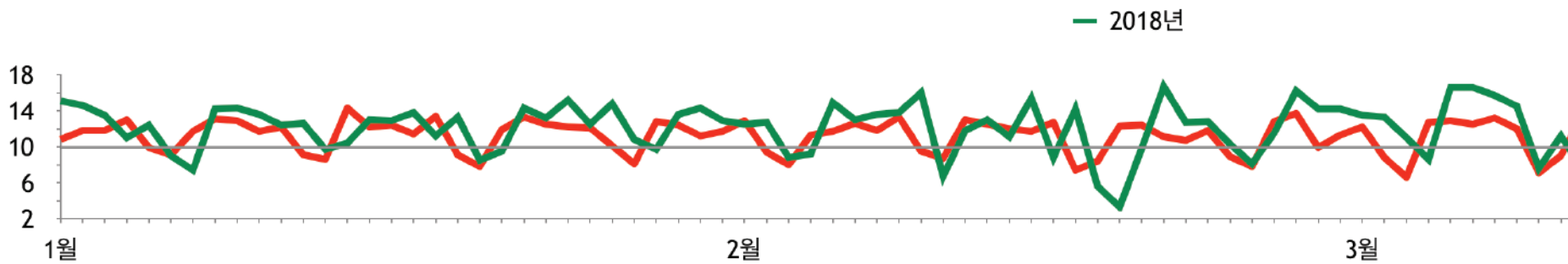
독이 무너진 것인가? 일상의 위기를 넘어 위기의 일상화다.

9시 뉴스 시청률

(조사기관 닐슨코리아)



5/23(목) 8.7%
5/24(금) 9.6%
5/25(토) 7.1%



광장의 촛불 시민들이 묻고있다.

**“무엇이 달라졌나?”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는가?”
“어디로 갈 것인가”**

KBS를 바라보는 국민의 시선이 싸늘하다. 봄이 지나 여름으로 가는 문턱이지만 외부의 시선은 겨울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자칭 애국보수의 시선을 말하는 것이 아니다. 그들이야 늘 그랬으니 개의치 않는다. 태극기와 성조기 흔들며 쏟아내는 그 비언어와 비논리는 논할 가치조차 없다. 문제는 그 싸늘한 시선의 출발점이 지난 2017년 광장을 채웠던 시민들이라는 것이다. 촛불 들고 민주주의를 외쳐 대한민국을 바꿨던 그들이라는 것이다. 지금 그 시청자들이 우리를 향해 묻고 있다. 지금 너희는 어디로 가고 있느냐고?

하지만 그 질문에 대해 우리의 답변은 어떤가? 단호하게 “현재 우리는 변화하고 있으며 그 방향은 옳다”고 답변하지 못한다. 오히려 일부에서는 질문의 순수성을 탓한다. 혹시 그 질문의 목적이 “KBS가 문재인 정부를 위해 일해야 한다고 주문하는 것이냐?”고 의심하기도 한다. ‘진영논리에서 나온 질문’이라고 치부하기도 한다. 그래서 답변할 이유가 없는 것 아니냐고도 한다. 무엇이 잘못된 것인가? 질문인가, 아니면 답변인가?

지금 우리 내부는 질문을 탓하고 있다. KBS에 대한 오해에서 비롯된 질문이라고. 혹은 사정을 잘 몰라서 하는 말이라고. 그래서 답변하기 곤란하다고 단정하고 있는지도 모른다. 하지만 그 질문자가 누구인가? 우리는 늘 외쳤다. “KBS의 주인은 시청자”라고... 그렇다면 답해야 한다. 우리의 주인이 묻고, 경고하고, 질책하고 있다. 대한민국을 바꿨던 촛불시민들이 묻고 있다 “KBS는 응답하라”고...

우리에게 답변을 거부할 권한은 애초부터 없다. KBS의 주인은 국민이고, 국민이 묻고 있기 때문이다. 답변은 우리의 선택이 아니라 의무다.

내부로 돌아오자, 답변할 준비는 되어있는지 돌아보자.

혼돈이다!

주장이 넘쳐나지만 경청의 자세는 찾기 힘들다.

주장도 경청도 선택하지 않은 자들은 침묵하고 냉소한다.

모두가 위기라고 말하지만

“내가 위기를 해결하겠다.”는 선수는 보이지 않는다.

반면에 꾸념이나 얄팍한 현상 진단을 하는 꾀들은 넘쳐난다. 차라리 냉소보다 못하다. 전염성이 강하기 때문이다.

이러다보니 ‘일상의 위기’를 넘어 이제는 아예 ‘위기의 일상화’다. 위기는 곳곳에서 찾기 쉽다. 주변을 돌아보라. 자신이 앉아 있는 곳 주변 몇 미터만 봐도 위기의 징후가 있지 않은가?

모두가 다 아는 몇 가지만 거론하자. KBS뉴스의 시청률은 가랑비에 옷 젖듯 조금씩 떨어지고 있다. 이제 평일에도 종종 한자리수를 기록한다. 지난해만 해도 16%를 넘은 날이 1월부터 5월까지 7일이었는데 올해는 같은 기간 단 하루도 16%를 기록하지 못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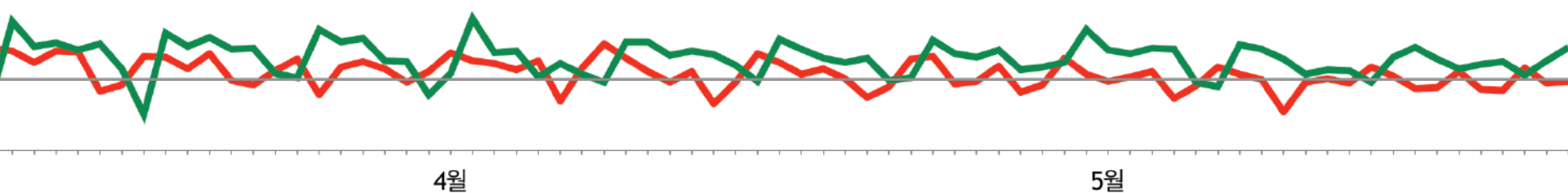
누군가는 KBS뉴스가 정부여당을 비판하지 못하고 야당 권력에 만 칼을 들이대니 불공정하다고, 그래서 시청자가 떠나가는 거라고 주장한다. 거론할 가치조차 없는 황당한 주장이니 그냥 무시하자. 반박하기도 귀찮다. 그렇다면 원인은 무엇인가? 왜 우리뉴스의 영향력과 신뢰도는 양승동 사장 취임 1년이 지난 지금도 여전히 JTBC의 반 토막 수준이고 앞으로도 나아질 가능성이 보이지 않으며, 가랑비 옷 젖듯 시청률은 떨어져 가는지 답해야 한다.

원인은 시청자가 알고 있다. 시민들은 KBS에 묻고 있다. KBS는 여전히 기계적인 균형을 기준으로 보도하는 것 아니냐고? KBS는 혹시 자신들을 대단히 객관적인 저널리스트로 자부하며 모든 사안에 대해 냉소하고 적당히 거리를 두며 관찰자가 되려는 것은 아니냐고 묻고 있다. KBS가 지난 1년 동안 보여준 KBS만의 뉴스는 무엇이냐고 묻고 있는 것이다. 또 묻는다. 너희들은 JTBC보다 무엇을 장점이라고 말할 수 있느냐고?



— 2019년

2018년-19년 동기간(1월~5월) 9시 뉴스 평균 시청률 비교



프로그램 역시 마찬가지다. 경쟁사는 연일 화제성 높은 프로그램을 내놓고 있지만 우리는 여전히 '전국노래자랑' '6시 내고향', '가요무대'로 대표되는 스테이션 이미지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장수 프로그램이 문제라는 것이 아니다. 전통 장수 프로그램들에 의존한 채 새로운 시도를 위한 전사적 노력은 보이지 않는다는 것이다.

서로가 자신의 영역만을 지키고자 한다. 공영방송 만이 할 수 있는 장기적인 안목의 시도와 도전도 보이지 않는다. 없는 재원 쪼개서 남들 하는 것 어설피 흉내 내려다 보니 결과물이 좋을 리 없다. 포기할 것은 포기하고 선택할 것은 선택해야 한다.

지역국 활성화도 여전히 '현재 고민 중'이다. 그 고민 1년이 넘어 2년째를 향하고 있다. 일부에서는 사장, 부사장이 방향성을 내려주지 않으니 구체적인 실천계획을 못 만든다는 얘기도 들린다. 일부에서는 논란이 커지고 책임질 것이 두려워 구체적인 방안은 현장에 돌리는 것 아니냐는 소리도 들린다. 어쨌든 중요한 것은 아직도 '진행 중'이라는 것이다. 그 책임은 결국 사장과 경영진의 의지문제다. 변화가 없으니 지역 시청자들도 하나 둘 떠나는 것이 현실이다. KBS가 아닌 지역 민방이 공영방송 역할을 하고 있음에도 우리는 여전히 '고민 중'이다. 답답할 뿐이다.

사내 구성원간의 충돌도 심각하다, 더 큰 문제는 충돌을 사전에 예측하지도 못하고 사후에 제어하지도 못하고, 재발을 방지할 수 있는 시스템도 보이지 않는다는 것이다. '1박2일' 관련 보도를 놓고 예능과 보도가 갈등한 것은 대표적인 예다. 서로의 주장이 부딪히기 전 누구하나 예상하지도 못했고, 누구하나 조율하지도 못했다. 사후에 재발 방지 대책을 세웠다는 소식도 없다. 최근에는 '저널리즘 토크쇼 J'의 아이템 선정을 두고 유사한 충돌이 또 다시 벌어지고 말았다.

충돌할 수는 있다. 과거 권위주의 경영진 체제에서는 감히 상상도 못했을 일이 건전한 토론의 방식으로 나타나는 것일 뿐, 큰 문제는 아니라는 의견도 있다. 하지만 충돌을 사전에 인지하고 이를 조율하지 못한다면, 조율되지 못해 일어난 충돌의 원인을 분석하고 재발방지책을 마련하지 못한다면 그 충돌이 어떻게 긍정적일 수 있다는 말인가? 드러난 갈등이 수습되고 긍정적인 방향으로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또 다른 갈등의 씨앗으로

파리를 틀기 때문이다. 지금 우리 내부의 갈등이 생채기를 내고, 생채기가 굵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간부들이 책임지지 않으려 한다."는 지적도 여전하다. 책임지지 않으려면 권한도 행사하지 말라. 경청하고 경청하되 결단할 때는 과감해야 하고, 결단했으면 실천해야 한다. 결과가 두려워 머뭇거리고, 머뭇거리는 것이 신중한 것으로 포장된다면 도대체 이 위기는 어떻게 돌파할 수 있다는 말인가?

다시 지난 1년여를 돌아보자, 적폐는 청산되었는가? 경영수지는 개선되었는가? 조직은 하나의 목표를 위해 나아가고 있는가? 인재는 적재적소에 쓰이고 있는가? 간부들은 희생하며 책임지려 하는가? 시청자의 신뢰는 회복되었는가? 프로그램의 경쟁력을 나아가고 있는가?

아니라면 혹시 이런 소리만 곳곳에서 들리는 것은 아닌가?

"내 주장이 옳아"

"내가 왜 그 일을 해"

"기다리면 좋아질 거야"

"위기를 너무 심각하게 생각하지 마"

"뭐 저들 얘기는 무시해도 돼"

"당장 하기는 힘들어"

"나는 모르겠고 네가 하면 되겠네."

지금 KBS는 어디로 가고 있는가? 우리를 응원해주던 광장의 시민들이 묻고 있다.

PS. KBS본부도 위와 같은 지적에서 결코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본부에 대한 어떠한 비판도 겸허히 수용하겠습니다.



전격 블라인드 인터뷰

“가장 심각한 위기는 KBS 구성원들에게 위기의식, 절박함이 보이지 않는다는 것”

전현직 KBS 출입기자와 전직 방송기자 가운데 KBS에 대한 이해와 애정이 있는 4명의 기자에게 물었다. 과연 외부자 또는 경쟁매체의 시선에서 바라본 현재의 KBS는 어떠할까? 익명성을 전제로 솔직한 얘기를 들어봤다.

파업 이후 1년 지났는데, 어떤 변화 있다고 보나.

C 변화가 없지 않았지만 역시 딱히 기억나는 건 없다.

B KBS의 가장 큰 문제는 인상에 남지 않는다는 거다. 보도 영역에서 보자면 SBS는 상당한 수준에 올라온 느낌이고 MBC는 그나마 포장을 잘한다. SBS는 뉴스도 스토리텔링을 하면서 다음 꼭지를 보고 싶게 만든다. 그런데 KBS는 블록뉴스라곤 하지만 형식적으로 쪼갬 느낌이다.

A 청와대 김태우 수사관 보도도 KBS가 가장 먼저 했는데, 그걸 아무도 모른다. 그게 KBS의 모습이다.

D 많이 좋아지지 않았느냐고 하는데 그건 10년 전 기준으로 그렇다. 뉴스를 보자면 모든 뉴스를 원고 읽듯 하니 재미가 없다. 짜여진 질문에 짜여진 대답, 생동감이 없다. 1인 미디어시대에 모두가 저널리즘을 직접 경험하고 있다. 시청자들은 굉장히 수준이 높아졌는데 앵무새처럼 원고를 읽고 있는 걸 누가 보겠나. 그런데도 많이 좋아지지 않았느냐고 하는 건 복고이고 퇴행이다.

7-9체제 아는가. KBS가 7시 종합뉴스-9시 심층 블록뉴스로 방향성을 정했는데, 잘되고 있다고 보는가.

A KBS 기자 말고 누가 알겠나.

B 9시 뉴스가 이전과는 달라진 것 같기는 한데, 효과적으로 작동했는지는 모르겠다.

뉴스 경쟁력이 떨어진다는 진단인데...

D 화면이나 그림 완성도에 집착한다. 그림 없이 10분간 떠돌아도 김어준 뉴스는 몰입이 된다. 그게 뉴스냐, 그게 저널리즘이나 비판하지만 훨씬 더 원초적 저널리즘에 가깝다. 말할 자유가 없는 기자, 말할 용기, 말할 실력이 없는 기자를 저널리스트라 볼 수 있나. 그러니 KBS는 재미도 없고 초짜 같아 보인다.

A 기대치가 높아 실망도 크다. 한국 언론사 중에 가장 많은 기자가 있고 기본기를 갖추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막상 뚜껑 열어보니 다른 방송사보다 나은 게 보이지 않는다. 오히려...

B 송현정 기자와 문재인 대통령 대담도 그렇다. 가장 큰 언론사에서, 대표 공영방송에서 엄선하고 엄선해 내보냈을 거라 생각하는데, 기대에 못미쳤다. 대중은 그걸 이해하기 어렵다. 이런 빅 이벤트를 저렇게 날려버리다니... 결국 KBS 실력이 이 정도 밖에 안되는 거구나 하는 생각이 들 수밖에 없다.

아픈 부분이다. 시청자들의 비판을 내부 구성원들이 받아들이는 인식의 수준에서도 간극이 있어 보인다.

C 기자들이 중요하다고 보는 것과 대중의 생각에는 분명한 차

이가 있다. 하지만 그 거리감을 좁히는 것도 언론 스스로의 몫이다.

D 프로페셔널하지 못했다. KBS의 실력에 실망한 거다. 일단 이것을 인정한 상태에서 시청자들의 불만을 되새겨야 한다.

B 대담 태도나 질문의 내용 등에 화가 난 시청자도 많지만, 시청자들의 불만을 대하는 KBS의 태도에 더 분노가 폭발한 측면이 있다. 기본적으로 기자들에 대한 불신이 큰 상황에서 ‘내가 생각하는 것과 완전히 동떨어진 생각을 하는구나’ 하는 실망이었다.

긍정적 변화도 있지 않았나. 칭찬도 좀...

C 저널리즘토크쇼, 대화의 희열, 거리의 만찬, 도올아인 오방간다... 시사교양 프로그램에서는 변화가 보였다. 시대정신이라고 할까, 프로그램에 시대정신을 녹여내는 고민과 시도는 인상적이었다.

A 대화의 희열에서는 과거의 KBS라면 가능할까 싶을 정도로 파격적인 인터뷰이도 나오고, 도올아인 오방간다의 포맷도 신선했다. 그런데 강원산불 재난방송 실패나 대통령 대담 논란 등이 터지면서 혹 갔다.

“그동안 정석이라고 여겼던 것들, 그것이 오히려 적폐나 퇴행은 아닌지...”

현재의 KBS 상황을 위기라고 보는가? 그렇다면 어느 정도 위기라고 보나?

C 위기다. 시청률, 광고 등 여러 지표상으로도 심각한 위기다. 왜 KBS가 필요하냐는 질문에 직면한지 꽤 됐다. 스스로 왜 공영방송 필요한지 존재 이유를 보여주지 못한다면...

B 위기다. 목소리 큰 사람들의 비판이 과대 대표된 측면이 있지만, 별거 아닌 걸로 받아들여선 안된다. 시청자가 언제까지 기다려주지는 않는다.

A 완전히 바닥을 친 위기냐고 묻는다면 그 정도는 아니라고 본다. 문제는 KBS구성원과 시청자의 인식 차이가 크다는 것이다. 그런데 내부 구성원들이 어느 정도 위기의식을 느끼는지 모르겠다.

D 위기다. 8년 전 개국했을 때 비웃었던 종편을 보라. 과연 KBS가 종편보다 취재력, 방송능력 등에서 뛰어나다고 말할 수 있나. 냉정하게 성찰해야 한다. 이 덩치에 그 정도 결과 밖에 못보여준다면 누가 공영방송을 인정하겠나. 가장 심각한 위기는 KBS 구성원들에게 이런 위기의식, 절박함이 보이지 않는다는 거다.

무겁다...마지막으로 조언 부탁한다.

A ‘우린 준 공무원이야’ ‘KBS가 망하겠어’ 이런 분위기 빨리 타파해야 한다.

B 제발, 소수자라도 시청자 의견을 진정성 있게 들어달라.

C 내부 구성원들이 스스로 약점을 찾아내고 개혁하려는 의지가 있어야 하지 않겠나.

D 그동안 정석이라고 여겼던 것들, 그것이 오히려 적폐이거나 퇴행은 아닌지, 진지하게 성찰하시길...

지역방송활성화 약속 1년 전사적 역량결집 인지 있나?

'지역'이라는 화두는 역대 사장들의 우선순위 공약이었다. 바꿔 말하면 그만큼 우선순위에서 늘 밀려왔다는 얘기다. 양승동 사장도 다르지 않았다. 그의 취임 일성은 "지역정책이 KBS 정책의 우선순위에서 밀려나지 않도록 하겠다."였다. 논란 끝에 부사장 직속의 국장급 지역정책실이 태동하는 등 이전보다 지역방송 활성화에 대한 기대가 컸건만 시간이 지날수록 약속했던 것과 달리 지역정책이 KBS정책의 우선순위에서 밀리는 것은 아닌지 우려스런 상황이 계속되고 있다.

첫째, 지역은 여전히 인력과 예산 확보 어려움에 허덕이고 있다. 사측은 줄곧 현재 진행 중인 지역방송활성화 사업 등을 기반으로 한 인력과 예산 지원을 하겠다는 방침을 강조해왔다. 그러나 지역방송 활성화 시범사업 3개 가운데 부산총국의 「청소년 대상 미디어 교육사업」은 결국 좌초되고 말았다. 제주총국에서 진행하고 있는 뉴스쇼 성격의 '7시 오늘 제주'는 예산 6억 원이 투입되는 지역차원에

서는 규모가 큰 사업이다. 특히 지역 편성 자율권 확보와 인력·예산 확보를 위한 플랫폼의 기준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다른 지역 총국들도 예의주시하고 있다. 현재 시범사업에 대한 평가가 진행 중이고 결과에 따라 부분 확대할지 전면 확대할지 검토 중이다.

문제는 예산이다. 산술적으로 계산해도 전면 확대를 위해서는 50억 원 넘는 예산이 든다. 제주총국에서 6억 원이면 그나마 사정이 조금 나은 총국에서는 이 보다 적은 예산으로 가능한 거 아니냐는 얘기까지 나온다. 얼마가 됐든 사측은 내년도 예산에 반영이라도 하고 있는 건가? 광주총국의 SNS 전담 '뉴 미디어 팀'도 사정이 크게 다르지 않다. 예산 1억 원을 지원하지만 인력충원은 이뤄지지 않다보니 마른수건 짜기로 운영되고 있다.

둘째, 지역방송활성화를 위해 지역정책실을 중심으로 전사적인 역량을 결집하고 있는가에 대한 문제이다. 사측은 조직

개편 이후 공식적인 석상에서 지역정책실이 이전 사장 때와는 달리 국장급 지위로 격상했음을 강조해 왔다. 중요한 것은 책임자의 지위고하가 아니다. 사장도 얘기했듯 지역정책이 KBS의 정책순위에서 밀리지 않기를 바랄 뿐이다.

지역정책의 두 축은 누가 뭐라 해도 예산과 인력 확충에 있다. 그러나 KBS의 구조적 특성상 예산과 인사를 본사 담당부서에서 실질적으로 행사하고 있는 게 현실이다. 중요한 것은 정책결정 논의 과정에서 지역정책실의 역할이 외면되거나 권한이 제대로 발휘되지 않아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거듭 강조하지만 지역방송국 문제는 단지 지역정책실만의 문제가 아니다. 전략, 보도, 제작, 편성, 기술, 경영의 모든 책임자들이 공통의 숙제임을 다시 한 번 인식하고 지역정책실을 중심으로 전사적 역량을 결집해야 한다.

재난방송 주관방송사 "흔들"

**위기 모면용 대책으로 안돼!
뼈를 깎는 혁신만이 살길이다.**

KBS의 존립 한 축이 흔들린다. 진실의 수호자, 공익의 대변자로 저널리즘을 구현하는 공영방송으로서 신뢰 회복은 더디기만 하다. 여기에 KBS를 떠받치던 한 축인 국가기간방송으로서 재난방송주관방송사의 지위마저 위태롭다.

더 직설적으로 얘기하자면 두개의 가치 가운데 어느 하나라도 제대로 그 역할을 해내지 못한다면 KBS의 존립 이유도 그만큼 사라진다는 말이다. 이미 우리는 지난 10년 동안 공영방송의 가치가 훼손되었을 때의 상실감이 얼마나 큰 것인지 몸소 체험해 왔다.

동해안 산불이 발생한지 두 달이 지났지만 파장은 쉽게 가라앉지 않고 있다. 아니 국민들의 눈높이를 충족하지 못한 KBS의 재난방송은 급기야 KBS의 존립 근거마저 송두리째 흔들고 있다고 봐야 할 것이다.

지난 5월 15일 대통령 주재 국무회의에서 '재난주관방송사를 추가 지정하는 방안'이 논의됐다. 동해안 산불 이후 KBS가 자구책을 마련하고 나섰지만 더 이상 KBS를 믿지 못하겠다는 것이다. 대안으로 24시간 방송이 가능한 뉴스 채널을 대상으로 구체적인 방송사의 이름까지 거론되고 있다.

공영방송 KBS가 존립 근거의 하나인 재난방송사의 지위를 다른 방송사에 내줘야 한다는 상상만으로도 아찔하다. "설

마 그러겠어?" 라는 자위로 애써 무시하기에는 내년부터 당장 방송법을 뜯어고쳐서라도 KBS 외에 또 재난주관방송사를 두겠다는 방송통신위원회의 로드맵이 구체적이다.

최종 대책이 나오지는 않았지만, 동해안 산불 재난방송 참사 이후 KBS가 국민에게 신뢰를 줄만한 제대로 된 혁신안을 마련하고 있는지 의문이다. 당장 위기를 모면하자는 식의 땀질식 처방만 나열한 것은 아닌지 의문이다. 기존의 관성을 뒤엎고 예상을 뛰어넘는 강력한 혁신안이 나와도 잃어버린 신뢰를 되찾을 수 있을지 장담하기 어려운 상황에 그동안 KBS는 무엇을 하고 있었는지 묻고 싶다.

원점에서 재난방송을 재설계해야 한다. 뼈를 깎는 혁신만이 살길이다.

지역방송활성화...이런 것이 필요하다!



부산울산지부

- ✓ 수입금 마련 지출 비율 자율성 확보
협찬금과 문화사업국 수입 85%만 사용, 나머지 15%에 대한 지역국 재량 확대 필요
- ✓ 예산 배정 현실화
시설운영비(청사유지보수/운영) 매년 삭감해 5년 전 비해 절반 수준.
30년 노후건물 유지를 위한 현실적인 예산 배정 필요
- ✓ 지역국 온라인 콘텐츠 제작 조직 신설/SNS 요원 예산지원 필요
SNS 요원 예산지원을 지역 수입금으로 충당 해야하다보니 특집 등에 쓸 수입금 줄어드는 빈곤의 악순환 반복
- ✓ 장비 구매 자율성 확보
당장 급한 소형장비는 지역에서 구매 절차 간소화시켜야
- ✓ 지역 온라인 콘텐츠 전담 조직 신설 및 지역 프로그램 다시보기 고화질 영상지원 필요
- ✓ 본사 편성 확보
본사 편성 확보를 통해 지역 제작 프로그램의 수준과 제작진의 능력 제고 필요
- ✓ 지역 인력 채용과 관련해 지역국과의 협의 시스템 도입 필요
- ✓ 뉴스제작 후반작업 품질 제고를 위한 3D 그래픽/ 뉴스 스튜디오 등 인프라 개선 필요
- ✓ 지역총국 자체 제작프로그램 홍보비 책정 필요
지역 대표프로그램과 뉴스 앵커 등을 적극적으로 알려 시청률 제고

제주지부

- 지역뉴스 활성화를 위한 제안-7시 오늘 제주를 중심으로
 - ✓ 다채널 다매체 시대 눈과귀가 호강하는 시대..KBS지역뉴스의 '부화뇌동'
 - ✓ 그래서 "왜 지역뉴스가 활성화 되어야 하는가?"에 대한 공동의 인식 필요
 - ✓ 그렇다면 "어떻게 지역뉴스를 활성화 할 것인가?"
다른 화면, 다른 스타일, 적극적이고 심층적이며 주민 밀착형 뉴스 필요
기존 지역뉴스 편성을 깨트리는 로컬 존(Local Zone) 만들어야
 - ✓ '리소스 투자+문제외식 콤비네이션'..7시 오늘 제주'에 대한 호응 이어져
 - ✓ 지역방송 활성화의 시작은 지역 이슈의 전국화, 전국 뉴스의 지역화에 있음
- ## 대전충남지부
- ✓ 사건사고 대비 MNG배치 확대
대전충남에 본사에서 쓰던 구형 1대(회선 불안정/ 배터리 조기방전)
천안/홍성센터에 없음
대전 MBC의 경우 대전 본사 1대, 천안/홍성센터에 각 1대씩 모두 3대 배정
재난방송에 누가 더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을까?
 - ✓ 모바일 업무 담당자 지정/ 모바일 관련 연수기회 확대 필요
업무지정도 돼 있지 않다 보니 사실상

지역국 홈페이지 방치 상태

후배중심으로 모바일 기사작성/유통/트렌드에 관한 관심이 많으나 연수기회 부족

집체교육 참여 보장뿐 아니라 E-러닝 과정의 개설도 필요

대구경북지부

- ✓ KBS 지역방송은 하나의 생명체 같은 존재
- ✓ 기능이 활발하게 발휘되기 위해서는 내부든 외부든 특정 자극이 필요
- ✓ KBS의 지역방송은 '안정'상태가 아니라 노화되고 있어
- ✓ KBS의 노화원인이 무엇일지, 어떻게 하면 노화를 멈출 수 있을지 문제 진단과 해법 찾아 실천하는 의지가 중요

강원영동지부

- ✓ KBS지역방송국의 책무: 지역문화 창달, 공정보도, 재난방송 통한 지역민의 안전 수호
- ✓ 인력·예산·장비의 부족..구성원들 열정과 사기 저하
- ✓ 노사 지역방송활성화 TF 가동 필요..지역방송 활성화 위한 혁신 작업 속도내야

진실과미래위원회 1년 성과와 한계

간부 책임뿐 아니라 '일선의 무기력'도 통렬하게 지적 20여건 진상 규명...법적 시비로 책임자 처벌 지연

진실과미래위원회가 출범한지 1년이 됐다. 부끄러운 과거가 공개되고 감춰졌던 진실의 조각들이 드러났다. 잘못을 덮어두고는 미래를 얘기할 수 없다. 통렬한 반성에서 시작된 교육지책이었다. 적잖은 성과가 있었지만 한계도 뚜렷했다. 이제 조사활동은 사실상 끝났고, '잊지 않기 위해' '되풀이하지 않기 위해' 백서를 만드는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었다. 성과와 한계를 짚어본다.

2018

- 6. 05 진실과미래위원회 운영규정 이사회 통과
- 6. 19 제 1차 위원회 개최
- 9. 17 법원, 효력정지 가처분 인용
→징계 '권고' 및 '요구' 조항 효력 중단
- 10. 16 조사결과 1차 공개 기자회견
- KBS판 '블랙리스트' 의심 자료 확인
- 'KBS기자협회 정상화모임' 편성규약 및 사규 위반
- 시사기획 창 <친일과 훈장> 제작 방해 및 불방
- 11. 08 9.17 부당전보 의혹 조사결과 공개

2019

- 2. 07 심의실 제작 자율성 침해사례 조사결과 공개
- 3. 06 블랙리스트, 화이트리스트 조사결과 공개
- 3. 14 최순실 국정농단 보도 문제점 조사결과 공개
- 3. 21 사측의 부당 노동행위 조사결과 공개
- 4. 09 대통령 라디오 주례연설 조사결과 공개
- 4. 17 특정 진행자 동시 교체 조사결과 공개
- 4. 25 이사회 등의 방송 통제 사례 조사결과 공개
- 5. 14 고법, 가처분 기각
→징계 '권고' 가능

▲성과

진실과미래위원회의 조사는 방송의 독립성과 제작 자율성 침해를 밝히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 대표적인 것이 '기자협회 정상화 모임'을 통한 기자 줄세우기, 편성규약 위반 등에 대한 것이다. KBS는 박

근혜 정권 시절이던 2016년 언론사에서 결코 있어서는 안 될 가장 저질스럽고 졸렬한 수단으로 기자들을 통제하고 비판 의식을 거세했다. 저널리즘의 기본이자 공영방송의 근간을 흔든 부조리였다. 조사를 통해 보도본부가 '정상화모임' 가입자와 비가입자를 구분한 명단을 작성하고 관리했음이 드러났다.

사드 관련 강압적 취재 지시, 영화 인천 상륙작전 부당 취재 지시, 시사기획 창 '친일과 훈장' 불방 사건 등 술한 제작 자율성 침해 사건들의 진상을 규명했다.

하지만 저널리즘 분야에서 가장 큰 성과를 꼽으라면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에서 드러난 보도의 문제점을 낱알이 짚어낸 것이다. 진실과미래위원회는 관련 기사 1,400여 건을 기사 이력시스템을 통해 분석했다. 이를 통해 최순실 낙종과 부실 보도 사태가 KBS의 신뢰도와 경쟁력에 심각한 타격을 줬다고 평가했다. 우병우 세월호 수사 외압 단독 기사를 고의적으로 낙종시키는 등 보도본부 간부들의 문제를 확인하고, 1차적 원인을 보도국 수뇌부의 무책임과 무능, 편향성에 있다고 결론 냈다.

위원회는 더 나아가 기자들의 취재역량과 의지가 심각하게 훼손됐고 취재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은 것도 중요한 원인이라고 분석했다. 특히 일선 기자의 '의욕 상실'과 '학습된 무기력'을 꼬집었다. 위원회는 "일선 기자들의 취재, 발제 등 자발적 움직임의 흔적을 찾기 힘들었다"면서 기자 개개인의 자성을 촉구했다. 간부들에 대한 비판보다 훨씬 뼈아프고 통렬한 지적이다.

이밖에도 진실과미래위원회는 윤도현, 정관용, 김구라 등 이른바 '블랙리스트' MC 하차사건, 윤창중 사건 덮기, 박근혜 대통령 방미 성과 특집과 세월호 모금방송 시도, KBS이사회 방송 개입 등을 추적하고 진상을 규명했다.

2008년 정연주 사장 해임 이후 사장 선

임, 대통령 라디오 주례연설 방송 편성에 청와대가 직접적으로 개입했음을 청와대 문건을 통해 최초로 밝혀내기도 했다.

위원회는 1년 동안 20여 개의 사건을 조사해 진상을 밝혔고, 편성규약 개정과 교육 등 제도개선을 권고해 실행토록 하는 등의 성과를 냈다.

▲한계

진상을 밝혀놓고도 제작 자율성을 짓밟고 프로그램을 망가뜨린 책임자를 징계하지 못했다. 위원회가 출범하고 첫 조사 결과가 나온 뒤 법원에서 효력정지 가처분이 인용됐기 때문이다. 다행히 2019년 5월14일 고등법원에서 1심 가처분이 기각되면서 법적 시비는 해소됐다.

하지만 조사회피와 조사 방해 등으로 책임자 규명에 실패한 부분도 있다. 강력한 조사권한이 주어지지 않은 상황에서 조사 대상자들의 저항에 효과적으로 대응하지 못했다. 보수야당의 집요한 공격과 소수 이사들의 방해도 걸림돌이었다.

제도개선과 내부 혁신에 있어서도 가시적 효과는 미적지근하다. 편성규약을 개정하기 위한 노사 협의가 시작됐고 신입직원들을 대상으로 한 편성규약 교육 등이 제도화된 것은 긍정적이다. 하지만 조직 내부의 자발적 개혁의지를 이끌어내지는 못했다. 진실과미래위원회는 '사장이 직접 보도본부에 경고하여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할 것'을 권고했지만 흐지부지됐다. 또 보도본부 내에서 자발적인 개혁 움직임이 있었는지도 의문이다. KBS 인들이 모두 힘을 합쳐 과거의 잘못된 것을 바로잡으려는 의지가 충분했는지 반성해보아야 한다.

남은 과제는 1년 동안 축적한 조사결과를 KBS 미래의 자양분으로 녹여 내는 것이다. 썩은 것은 확실하게 도려내고, 재발방지 대책을 넘어 근본적인 혁신안을 마련해야 한다.

계열사 감사는 꽃보직 고대영이 내려 꽃은 '알박기'

KBS미디어 김인영	KBS아트비전 임창건	KBS비즈니스 박병열	KBSN 김덕기
			
감사 임용 2017. 4.	감사 임용 2014. 9. 2017년 연임	감사 임용 2017. 3.	감사 임용 2017. 4.
경력 전 보도본부장	경력 전 보도본부장	경력 전 제작기술본부장	경력 전 이사회 사무국장
2016.11 신임투표 재적 77% 불신임	2014.5 세월호 보도참사 책임으로 사퇴	2016.11 신임투표 재적 70% 불신임	정연주 퇴진 적극 동참 '이승만 다큐' 담당 EP

**계열사 사장 평균 임기는 1년6개월
감사는 최소 3년 '말뚝'...임창건은 6년째 연임
사장은 바뀌도 감사는 못바뀐다**

사장이 바뀌어도 변하지 않는 자리, 바람마저 피해가는 자리가 있다. 한번 꽃으면 빼낼 수도 없는 꽃보직 중의 꽃보직 바로 KBS 계열사의 '감사'다.

김인영 KBS미디어의 감사는 김인영이다. 전 보도본부장으로 2016년 11월 본부장 신임투표에서 재적 대비 77% 불신임을 받고 물러났다. 단협상 재적 2/3 이상(67%) 불신임을 받으면 해임 요건이다. 2017년 1월1일자로 본부장에서 면직됐지만, 석 달 뒤인 4월 KBS 미디어 감사로 보상을 받았다.

보도본부장 시절 소신 없고 무능한 리더십으로 존재감은 없었지만, 고대영에 대한 충성심 하나로 자리보전을 했다는 평이 지배적이다. 기자협회 정상화 모임을 비판한 정연욱 기사를 제주로 부당 발령 내고, 영화 인천상륙작전에 대한 부당한 취재지시를 거부한 문화부 기자들을 징계한 것도 김인영이다.

KBS미디어 감사로 자리를 옮긴 뒤엔 무능과 적폐의 꼬리표는 슬쩍 감췄다. 누가 뭐래도 눈 귀 닫고 버티는 게 특기, 지구가 무너져도 내년 3월까지 임기는 채울 기세다.

임창건 KBS 아트비전 감사 자리는 임창건이 차지했다. 2014년 4월 KBS를 나락으로 떨어뜨렸던 세월호 보도참사의 책임자가 바로 당시 보도본부장을 맡고 있던 임창건이다. 후배들이 기레기로 손가락질 받던 그 위기의 순간, 임창건은 기민하게 몸을 피했다. 5월 본부장직에서 물러난 임창건은 넉 달 뒤 KBS 아트비전 감사 자리를 꿰찼다.

임창건을 아트비전 감사 자리에 꽃은 건 조대현 KBS 사장이었다. 임창건은 3년 임기를 마치고 2017년 연임에 성공했다. 당시 고대영 사장이 '은혜'를 베푼 것이다. 고대영에게 충성을 맹세하며 자리보전을 읊소했다는 후문이다. 현재 KBS 계열사 상임 임원 가운데 임기를 마치고 연임에 성공한 사람은 임창건이

유일하다. 보도본부장 시절 임창건은 바람 앞의 등불 처지였다면, 감사 임창건은 바람보다 먼저 눕는 질긴 '풀'이다. 촛불이라는 거대한 민심의 강풍에 고대영은 뽑혀 나갔지만, 임창건의 임기는 내년 3월까지 남아있다.

박병열 KBS 비즈니스 감사 자리엔 전 제작기술본부장인 박병열이 버티고 있다. 김인영과 함께 2016년 11월 신임투표에서 재적 70%의 불신임을 받고 퇴출됐다. 씁쓸함은 잠시, 달콤한 사탕이 뒤따랐다. 고대영의 낙점을 받고 이듬해 3월말 비즈니스 감사로 부활했다.

2016년 고대영이 조직개편을 강행하려하자 대부분의 엔지니어들이 크게 반발했다. 당시 본부장이었던 박병열은 전미방송협회 NAB 참관을 핑계로 '도피성' 출장을 떠났고, 수장이 자리를 비운 사이 기술분부는 공중분해 됐다. 전문성과 리더십 모두에서 기술 후배들의 신망을 얻지 못했지만, 단 한 사람 고대영에겐 충직한 부하였다.

김덕기 KBSN에는 김덕기 감사가 버티고 있다. 2012년 이길영 이사장 시절 이사회 사무국장을 맡았던 인연으로 대구총국장으로 영전했고, 2015년에 다시 이사회 사무국장으로 컴백했다. 정연주 사장 퇴진에 적극 동참하며 승승장구하던 그의 관운도 여기까지였나 싶었지만, 마지막 단추는 KBSN이었다. 2017년 4월 고대영 사장은 김덕기에게 감사 자리를 베풀었다.

'MB 찬양' 논란을 빚은 <현장르포 동행>을 제작했고 이승만 다큐를 밀어부친 PD 김덕기에게 고대영이라는 든든한 '빡'이 있었다. 그 덕에 내년 3월까지 남은 임기를 누리고 있다.

이처럼 KBS 계열사 감사 자리는 '적폐'들의 완벽한 은신처다. 계열사 사장들의 평균 임기는 1년6개월밖에 되지 않지만 감사들은 3년 임기를 버티며 '야물랑'이다. 경영의 책임을 물을 수 있는 대표이사나 다른 상임 임원과 달리 상법에서 감사는 임기를 보장하고 있다. 진정한 꽃보직은 '사장'이 아니라 '감사'라는 말이 괜히 나온 게 아니다. 물론 '직무에 관하여 부정행위 또는 법령이나 정관에 위반한 중대한 사실이 있을 때'는 주주총회를 거쳐 해임할 수 있다.

김용덕 본부장 KBS비즈니스 이사 선임 불신임 뒤 계열사 '보은 인사' 되풀이

김용덕 기술본부장이 신임투표에서 68.1%의 불신임을 받고 4월28일자로 면직됐다. 그런데 딱 5일 만에 계열사인 KBS비즈니스 이사에 선임됐다. 본부장 신임투표를 도입한 단협 정신을 거스른 것으로, 낯 뜨거운 보은인사라는 비판이 나온다.

2012년 전용길 콘텐츠본부장이 불신임 1년 뒤 KBS미디어 사장으로 낙점됐고, 고대영 보도본부장은 불신임을 받고 2년간 회사를 떠났다가 2014년 9월 KBS비즈니스 사장으로 컴백했다. 김성수 방송본부장의 경우 불신임 이후 미래사업본부장으로 임명되는 회전문 인사의 전형을 보여줬고, 박병렬 제작기술본부장은 면직 석달 뒤 KBS비즈니스 감사 자리를 보상받았다. 김용덕 본부장의 KBS비즈니스 이사 선임도 이런 일그러진 관행의 연장선에 있다.

신임투표 불신임(66.7%) 이후 보은인사 사례

대상	신임투표 결과	면직	보은 인사
전용길 콘텐츠본부장	2012. 9. 27. 70.4% 불신임	2012.12.27.	2013. 1. 7. KBS미디어 사장
고대영 보도본부장	2012.1.18. 70.7% 불신임	2012.2.2.	2014. 9. KBS비즈니스 사장
김성수 방송본부장	2016. 11. 30. 68.0% 불신임	2017.7.26.	2017. 7. 27. 미래사업본부장
김인영 보도본부장	2016. 11. 30. 77.0% 불신임	2017.1.1.	2017. 4. 1. KBS미디어 감사
박병렬 제작기술본부장	2016. 11. 30. 70.0% 불신임	2017.1.1.	2017. 3. 30. KBS비즈니스 감사
김용덕 기술본부장	2019. 4. 12. 68.1% 불신임	2019.4.28.	2019. 5. 3. KBS비즈니스 이사

2019 임금협상 및 단협개정 돌입! 노사 첫 상견례



5월31일 본관 6층 회의실에서 열린 본회의에는 전국언론노조 오정훈 위원장, KBS본부 이경호 본부장을 비롯해 노측 위원 10명과 양승동 사장, 정필모 부사장, 본부장 등 사측 위원 10명이 참석했다.

2019년 임단협이 시작됐다. 언론노조KBS본부는 5월31일 '2019년 임단협 본회의'를 열고 본격적인 협상에 들어갔다.

노사는 효율적인 교섭을 위해 본회의, 총괄 소회의, 실무 소회의 등 3단계 협의체를 구성했다. 세부적인 임단협 내용을 협의할 실무 소회의는 ▲조합활동 ▲공정방송 ▲인사 ▲임금 및 근로조건 분과 등 4개의 분과로 운영된다. 아울러 노사는 임단협 교섭과는 별도로 인사제도 개선을 위한 회의체를 구성하기로 합의했다.

4개의 실무분과와 주요 예상쟁점은 다음과 같다.

공정방송 : 임명동의제, 신임투표

인사 : 성폭력 예방 강화 및 주52시간 시행에 따른 노동시간 변화

조합활동 : 조합원 자격 범위 및 기본근무자 지정

임금 및 근로조건 : 임금 및 휴가제도 신설

KBS본부는 회의 진행 과정과 중간 결과 등을 중앙위원, 지부장을 통해 조합원들에게 공개할 방침이다.

뜨거운 감자 '선택적 근로시간제' 사측, 적용 대상 부서 제시

선택근로 대상 부서

- 영상제작국 : 영상제작 1·2·3
- 보도본부 : 정치부, 통일외교부, 국제부, 경제부, 산업과학부, 문화복지부, 사회부, 영상취재 1·2부, 탐사보도부, 재난방송센터, 시사제작국, 스포츠취재부, 스포츠중계부
- 제작1본부 : 시사교양 1·2국 일부 프로그램
- 제작2본부 : 예능센터 일부 프로그램
- 기술본부 : TV기술 1·2·3, 중계기술국 / 후반제작부(색보정)
- 지역국 : 특집 제작 PD, 취재·촬영기자 등

※잠정안으로 협의에 따라 바뀔 수 있음

52시간제 의무 시행을 한 달 앞두고 '선택적 근로시간제' 적용 여부가 뜨거운 감자로 떠올랐다.

7월1일부로 KBS내의 모든 노동자들은 주52시간 통상근로(소정근로 40시간+초과 12시간)를 유지하던가, 아니면 유연근로제 중 하나를 적용하게 된다. 초과 근로가 많지 않은 이른바 'nine to six' 노동자들은 통상근로를 적용해 기존의 노동형태와 큰 차이가 없다.

문제는 업무시간이 불규칙하고 초과 근로가 많은 기자, PD, 촬영감독, 후반제작부 등 제작 관련 부서다. 이 경우 ▲탄력근로시간제 ▲선택근로시간제 ▲재량근로시간제 ▲사업장 밖 간주 근로시간제 등 유연근로제를 적용할 수 있다.

탄력근로시간제는 방송사에 어울리지 않는 노동형태이어서 논의 대상에서 제외됐고, '사업장 밖 간주 근로시간제'는 해외출장 등에 제한적으로 적용될 것으로 보인다. 재량근로제는 드라마와 예능 일부를 중심으로 도입 여부를 놓고 협의 과정에 있다.

이제 남은 건 '선택적 근로시간제'다. 회사가 최근 '선택적 근로시간제' 적용 예상부서를 제시했다. 선택근로제는 주52시간 통상근로제를 1주 단위가 아닌 4주(약 1개월) 단위로 정산한다고 생각하면 이해가 쉽다. 통상근로에서는 1주에 52시간을 넘을 수 없지만, 선택근로제는 4주 동안 '52시간×4주=월 208시간'을 넘을 수 없다. 따라서 1~3째 주에 일을 몰아서 하는 바람에 208시간을 다 채웠다면 마지막 4째주는 통째로 쉴 수도 있다.

하지만 노동자가 업무의 시작과 종료를 선택할 권리, 휴일 근로에 대한 선택권 등에서 애매모호한 점 등이 있다. 또 부서원 전체에게 일괄 적용할 것인지, 부서원 사이에 노동 강도의 형평성에는 문제가 없는지 등도 살펴야 한다.

노동의 질을 높이고 노동자의 권익을 보호하면서 동시에 KBS의 경쟁력도 지켜야하기에 쉽지 않은 숙제다. 조합은 부서별로 돌아가며 11차례에 걸쳐 사측과 협의를 해왔지만 처음 시행하는 제도이다 보니 많은 부분에서 여전히 불확실성이 남아있다.

조합은 조합원들의 이해를 높이고 권익이 침해되지 않도록 6월4일 지역 설명회, 6월5일 보도본부 설명회 등 노사 공동 공개 설명회를 준비하고 있다. 또 장시간 근로 방지에 대한 대책과 시행 이후 문제 발생시 제도를 보완하고 변경할 있는 안전장치 마련을 사측에 요구하고 있다.

신입직원 노동조합설명회

2019년 상반기 입사 후배님들을 대상으로 한 노동조합 설명회가 5월 29일 오후 3시 30분부터 KBS 수원 인재개발원에서 열렸습니다.



노동절 기념 모범조합원 시상

조합 창립 기념일을 맞아 조합 단결과 조합원 권익향상을 위해 힘써주신 조합원들께 작은 선물을 드렸습니다. 중앙위원과 지부장이 추천한 80명에게 신세계 모바일 상품권(5만원)을 전달했습니다.

조합소식

조합 창립기념일 맞이 기념품 배포 및 아이스크림 이벤트

